

# 지방선거 D-8 이곳이 격전지

## 무소속이나 민주당이나

### ■ 광양

광양시장 선거는 무소속 이성용(68) 후보와 민주당 서종식(51)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참여당 박형배(43) 후보도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서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인 6~9%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1~22일 실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8%포인트 차이로 서 후보를 제쳤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최고 42%대까지를 오르내리면서, 서 후보는 최고 33%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각각 지지율 정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격차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격차가 선거 막판까지 유지되면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 후보는 막판에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대역전에 성공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정현복·김재용·남기호씨 등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이성용 후보 캠프



서종식 (민주당)



박형배 (참여당)



이성용 (무소속)

“특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무능한 시장’이라는 지적이 유권자 사이에 확산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선거구도에서 변수는 소지역

주이다. 광양시는 1990년 중반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한 도시다. 신도심인 동광양은 광양제철 등 기업이 많고, 외지인 빈도가 높다. 인구도 훨씬 많다. 이 후보는 옛 광양군 출신인 반면, 서 후보는 동광양 출신이다.

따라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경우 서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하지만, 동광양 출신인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장이 이 후보에게 합류, 영향력이 큰만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옛 광양군 쪽에서는 이 후보가 39.5%의 지지도를 얻어 18.6%를 얻은 서 후보

를 압도했으나 동광양인 중마동 등에서는 서 후보가 29.0%로 25.6%를 얻은 이 후보를 약간 앞섰다.

아직은 이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극복해야 할 것은 ‘3선 거부감’이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3선을 성공하면 토착세력에 둘러싸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없다”며 “유권자가 결국은 참신한 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참여당 박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0%대 초반의 지지도를 확보하며 선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서종식 막판 민주당 바람 불면 대역전
- 박형배 10%대 지지도 확보 선전
- 이성용 8%P대 격차 막판까지 같겠

에 합류했으며 1~3선거구 무소속 도의원 후보 3명과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 다수도 연대,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지지세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선대본부장은 맡은 이들 3명의 탈당과는 을 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3명 모두 자신의 선거처럼 이 후보 선거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 후보는 이 같은 경선 잡음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지지도 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고 서 후보는 계속 상승 중이어서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며

## ‘노관규 對 서갑원’ 대결

### ■ 순천

순천시장 선거에는 현직인 무소속 노관규(50) 후보와 민주당 조보훈(63), 민주노동당 이수근(42), 국민참여당 윤병철(48)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24일 현재 민주계 출신 무소속 노 후보가 열린우리계 민주당 조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실시한 광주일보 지지도 조사에서 노 후보는 조 후보를 두 배 가까운 17.7%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여일 전 다른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노 후보가 조 후보를 15%포인트 앞섰다.

이번 선거의 기본 구도는 노관규 시장 대 서갑원(48) 국회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매산고 선출부 사이인 두 사람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맞서 서 의원이 승리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노 후보가 서 의원이 영입한 이은 후보와 대결, 승리하며 시장이 됐다. 이 같은 두 번의 대결 후 주요 현안을 놓고 시장과 국회의원의 불화는 계속됐으며 이번 지방선거 경선 방법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 측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조보훈 (민주당)



이수근 (민노동당)



윤병철 (참여당)



노관규 (무소속)

- 조보훈 ‘박람회 재검토 후 연기·축소’
- 이수근·윤병철 양강속 득표를 올리기
- 노관규 “정원박람회 성공 마무리 할 것”

‘체육관 경선’으로 정하자 노 후보는 “경선에서 낙선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를 단행했다. 이에 서 의원은 “노 관규 단일화”를 통해 조보훈 후보를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재선 시장이 나오느냐는 것. 그동안 3명의 민선시장 모두 비리 등으로 중도 하차했지만 노 후보가 비리 사슬을 끊고 처음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노 후보는 “순천국제박람회 등 지역 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며 재선 의지를 밝혔지만 조 후보는 “오만과 독선의 4년을 심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ja@

### ■ 지방선거 핫코너

#### 김대식 “정파·지역 초월한 투표 돼야”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24일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 유세에서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투표가 돼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역 균형 투표를 호소했다.



2010년 지역갈등 없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강운태 “광주 차세대 전지 생산 메카 육성”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24일 “차세대 2차 전지분야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광주를 친환경 차세대 전지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차 전지 응용분야는 휴대용 IT(정보·기술)기기를 비롯해 수송기계, 로봇, 전력저장장치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활용



전지산업 육성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 윤난실 “강후보 일자리 10만개 창출 허구”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24일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박관태 시장 후보는 13만4000개 공약을 내걸었지만, 고작 2만8000개 증가(20.8%)에 그쳐 ‘거짓말 공약’임이 입증됐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강운태 후보가 일자리 10만 개 공약을 내걸어 박시장의 공약을 답습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500만 개 공약을 주장하는 꼴과 같다”고 비난했다.

#### 전원준 청년 400명에 일자리 제공

전원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4일 화순을 전국 10대 살기좋은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화순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의 경우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투자 유치가 청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내 35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400명의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김선옥 “전 후보 재산증액 밝혀라”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4일 전두원 후보에 대해 재산 증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전 후보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은 16억6500만원으로, 지난 2008년에 신고한 재산(12억4200만원)에 비해 4억2000만원이나 증가했다”면서 “증가액 사유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방수, 생활자치 망친 민주 심판

한나라당 하방수 서구청장 후보는 24일 “풀뿌리 생활자치를 망친 민주당을 심판하고, 집권 여당의 젊은 일꾼을 뽑아 희망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 서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희망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어 진정한 생활자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노 광주시장, 시의원 3곳 점전

민주노동당 광주시장은 24일 “광주시의원 선거 3곳에서 민노당과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점전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당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강은미(서구 라선거구) 후보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우승관(서구 다산거구)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점전을 펼치고 있고, 황차은(광산구 라선거구)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희망과 대안 “광역의회만 진보 지지”

광주지역 진보성향 단체 ‘희망과 대안’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의회만이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독점구도 타파를 위해 민노당 등 진보정당 소속 시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은 “민주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어 광주지역 지방자치에 대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6·2 지방선거를 지역 정치의 독점을 타파해 광주를 풀뿌리 지방자치의 모범 도시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 광주시 선관위, 투표 도우미 차량 운행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장애인·노약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 소방안전본부와 (사)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투표 도우미’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투표 도우미 차량 예약 접수는 26일부터 6월2일까지 각 구 선관위나 광주 소방안전본부,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전화(국번없이 119, 383-0130·2130·7130·9130)로 받는다.

## 임성훈-주향득 박빙 양상

### ■ 나주

나주시장 선거 판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 전문가 출신의 민주당의 임성훈(50) 후보와 남평인 신정훈 시장의 피 선거권 상실로 대신 출마한 무소속 주향득(48) 후보, 나주시장 출신의 무소속 김대동(64) 후보,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무소속 이광형(55) 후보, ABS 농어민 방송 사장 출신인 최동원(43) 후보 등 5명의 경쟁한 후보가 나주 민심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임성훈 후보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무소속 주향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는 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무소속 이광형 후보와 무소속 김대동 후보가 중위권을 형성하며 선두 그룹을 추격하고 있으며 최동원 후보도 지지층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우선 ‘경제 시장론’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임성훈 후보는 일자리 1만개 창출, 21세기형 도시 조성, 공무원 인사청문회 조제 제정, 영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의 공약으로 나주시를 업-그레이트 하겠다며 민심을



임성훈 (민주당)



주향득 (무소속)



김대동 (무소속)



이광형 (무소속)



최동원 (무소속)

- 임성훈 ‘경제 시장론’ 내세워 호소
- 주향득 일자리 3000개 만들겠다
- 김대동 시정 경험 바탕 민심 공략
- 이광형 30년 넘은 행정 전문가 자임
- 최동원 영산강 시대 농가소득 창출

공략하고 있다. 임 후보는 ‘부부시장’에 대한 거부감과 실물 경제 전문가에 대한 기대, 민주당 지지층 결집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2위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생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는 무소속 주 후보는 기업 일자리 3000개 창출, 지역 상권 부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주인재 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 후보는 인물을 선택하는 나주시민의 역량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란, 서민후보에 대한 민심의 지지 등을 기반으로 선거 승리

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무소속의 이광형 후보와 김대동 후보도 부동층이 30% 이상이라는 점에서 막판 대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30년이 넘는 행정 전문가로서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점에 강조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과거 시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 후보도 참신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영산강 시대를 주도하는 나주의 위상 확립에 나서는 한편 농업 다양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주시장 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는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다. 단순 계산으로는 주 후보와 이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임 후보를 제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단일화 성사 여부는 현재까지는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만 공감할 뿐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

#### 김장환 “당당한 전남학생 만들겠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4일 “1등이 아니어도 당당한 전남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환 후보는 “성적을 떠나 모든 학생이 한 인격체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초학력제도로 시책과 학력 책임제 등을 통해 기본학력 정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년 학교폭력이나 부적



역에 최첨단 공립 특수학교를 건립해 장애학생들이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장관수 학생 수준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

장관수 광주시 서구 교육의원 후보는 24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편입입학적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학력 진단과 능력별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구체적 공약으로 ▲교수·학습능력개발원 설립 추진 ▲학교간 협력력차 해소 방안 마련 ▲지역별 영어교육센터 확대 설치 등을 약속했다.

#### 전교조 해임·파면은 반민주적 폭거

전교조 출신 광주지역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은 24일 “정부의 전교조 교사 183명에 대한 해임·파면 조치는 정부 비판에 대한 허대의 보복 행위다”며 “전교조 출신 후보 당선을 이명박 정부의 ‘교육민주주의 침탈’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정희근·김선호 교육의원 후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징계방침 발표는 전교조 조직의 와해를 목적으로, 판세가 불리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유리하게 바꿔보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며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민주주의 침탈’을 막아내는 것은 전교조 출신들이 교육감, 교육의원으로서 당선되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말했다.